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10년 만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각하 내외분을 국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내외는 2003년 중국 방문 당시 각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각별한 우의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하의 취임 이후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서부 대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칭하이~티베트 간 철도가 완공되었고, 두 번째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세계박람회도 훌륭히 치러 낼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적 발전관을 토대로 선진 '샤오강 사회'를 실현해 가고 있는 각하의 지도력과 중국 국민의 저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석 각하,

수교 13년째를 맞이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각하와 함께 2008년까지 달성기로 한 양국 교역 1천억 달러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일본을 앞질러 우리나라의 첫번째 교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1만 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3만 개, 유학생만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야말로 국민 간 교류·협력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교역규모 2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서해안 1일 생활권 시대를 열어 가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은 다섯 차례의 6자회담과 각하의 북한 방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중국의 발전, 그리고 양국의 우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